

# 무의식의 대륙봉 탐사하는 이성의 시추선

《정신분석 혁명》과 《자크 라캉(전2권)》

김영민 | 동국대 영문과 교수

굳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데카르트, 프로이트, 마르크스, 니체, 하이데거 등의 경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인간은 본능과 이성, 육체와 정신, 의식과 무의식, 신경과 영혼, 사고와 언어로 구성된 생각하는 주체, 행동하는 주체, 말하는 주체, 생산하는 주체를 포함한 복합적 주체며, 어머니 탕줄을 끊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 환경 속에 던져진 존재다.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이항대립의 관념들은 틈 또는 경계선이 분명한 개체적 개념으로 변별돼 있기는 하지만, 실상은 표현하는 주체에 따라 그 틈 사이로 자유로이 왕래하며 때로는 상호의존적·보완적이고 때로는 상호배타적·배제적이기도 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본능을 억압해 광기를 증상으로 드러내는 이성, 육체의 성을 억압해 힘의 우위를 과시하는 정신, 억압된 무의식의 세계를 표상하는 의식, 신경체계를 억압당한 영혼, 자유로운 사고를 억압하는 언어 등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한줄기 흐름의 이면에는, 자유와 저항을 기치로 이항대립 개념의 위치를 전복시켜 자연상태로의 회귀를 회구하는 또 다른 역류의 흐름이 있어 왔다. 인류역사가 이 두 흐름의 반복과 전복의 변증법의 역사라고 한다면 위에 언급한 사상가들의 위치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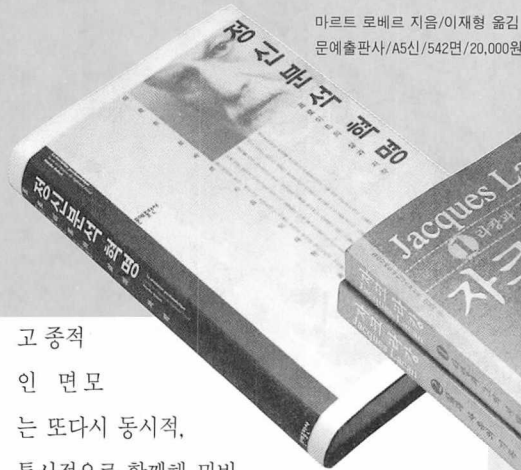
##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와 그 계승자

흔히들 인류 지성사에서 19세기 '의혹의 대가'라고 하는 니체, 마르크스, 프로이트가 이런 전복을 각각 철학, 정치경제, 심리학 분야에서 횡적으로 확장시킨 창시자들이라 한다면, 3H라 부르는 헤겔, 후설, 하이데거는 철학적 담론에서 이를 종적으로 심화한 이론가들이라 할 수 있다. 횡적이

고 종적인 면모는 또다시 동시적, 통시적으로 함께해 피부스의 띠를 이루면서 20세기를 결산해왔다. 이 흐름의 중심에 바로 본능, 육체, 무의식, 성, 욕망, 언어가 다원적 중심을 이루며 20세기의 담론을 지배해왔다. 프로이트로 시작돼 라캉으로 넘어온 정신분석학적 담론의 역사가 바로 그 다원적 중심에 놓여 있다.

20세기를 풍미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란 무엇인가? 정신분석학의 시조라고 하는 프로이트는 누구며 프로이트 이후 정신분석학의 전통은 어떻게 이어졌으며 그 대표자들은 누구인가?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전통에서 자크 라캉의 역할은 무엇인가? 독일어권의 정신분석학을 대표하는 오스트리아의 프로이트와 프랑스어권의 정신분석학을 대표하는 라캉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정신분석학의 역사를 구성해왔는가? 라캉은 누구며 라캉의 정신분석학은 프로이트의 그것과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라캉 정신분석학의 본질은 무엇인가? 프랑스의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는 프랑스에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재구성할 때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라캉 이후의 정신분석학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 출간된 지 100주년을 기념하는 2000년과, '프로이트로의 회귀'를 표상하는 20세기 정신분석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한 자크 라캉의 100주년 탄생을 기념하는 2001년에 던져진, 정신



마르트 로베르 지음/이재형 옮김  
문예출판사/A5신/542면/20,000원



엘리자베트 루디네스코 지음/양녕자 옮김  
새물결/A5신/각 444면/각 17,000원

분석학의 구조적 이해에 대한 압도적인 질문이다. 최근 국내에서 이런 질문을 의도적으로 인식이라도 하는 듯 두 종의 중요한 전기물이 번역·출간됐다. 프랑스의 독문학자이자 번역가인 마르트 로베르의 《정신분석 혁명: 프로이트의 삶과 저작》(문예출판사)과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인 엘리자베트 루디네스코의 2권으로 분권 번역 출간된 저서 《자크 라캉: 라캉과 그의 시대》《자크 라캉: 삶과 사유의 기록》(이상 새물결)은 단순히 전기라기보다는 정신분석학의 이론을 종합해 놓은 이론의 역사에 관한 저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프로이트의 삶과 사상에 대한 전체적 조망

《정신분석 혁명: 프로이트의 삶과 저작》은 프로이트의 개인적, 사회적 삶을 조명하고, 프로이트의 이론과 삶의 궤적을 적절하게 연결하는 프로이트의 전모를 제시한 이른바 정신분석학 입문서다. 저자는 서문에서 이 책이 프로이트의 사유 과정과 친숙할 수 있도록 그의 업적을 다루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발견과 함께, 인간의 본능이 문명의 요구들로부터 스스로를 억압하라고 너무 지나치게 강요할 때는 개인의 정신 건강이 위협해질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을 언급한다. 이 책은 대체로 프로이트

의 개인적인 삶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프로이트 정신분석학 이론의 발전과정을 어니스트 존스의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삶과 저작》을 많은 부분 인용하면서 나름대로 프로이트의 이론에 초점을 맞춰 알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

프로이트의 인생과 그의 정신분석학 이론에 대한 총체적인 조망과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을 투자해서 읽을 가치는 인정되지만, 한편으로 프로이트와 프로이트 이후의 현대 정신분석학과의 연결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20세기 후반의 정신분석학에 대한 왜곡의 여지가 있다. 또한 로베르는 라캉의 잘못으로 정신분석학은 우리 언어를 크게 왜곡시키고 있다고 하며, 라캉이 제공하는 주석을 철학으로 일탈한 상태에서 거의 제멋대로인 엉터리 번역본에서 빌려온 것이라 주장하면서 라캉의 이론을 폄하해, 진정한 정신분석 혁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이 1962년부터 1963년까지 프랑스의 국영 채널인 프랑스III 라디오 방송의 시리즈임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 남겨놓은 프로이트 이후의 정신분석학의 전개는 엘리자베트 루디네스코의 2권으로 번역 출간된 저서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프로이트 혁명’ 이어가는 라캉

사실상 프로이트의 주장은 치료받는 환자의 입에서 나온 말에서 정신분석학 담론이 발견된다는 데 있다. 그러나 프로이트식의 구술치료방법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해 순수 정신분석학을 이룩하려는 이론가가 바로 자크 라캉인데, 라캉은 프로이트의 “분석치료가 전적으로 발화에 의존한다”는 명제를 1936년 <현실원칙을 넘어서>라는 에세이에서 확인하고, 1953년 ‘로마의 담론’으로 알려진 <정신분석학에서의 발화와 언어의 기능과 영역>에서 분석자인 타자에게 말하는 환자의 발화가 ‘구술치료’의 핵심임을 확인해, 프로이트의 발견을 재해석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이 루디네스코의 2권의 저서에 효과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루디네스코는 이전에 출간한 전 2권의 《프랑스 정신분석의 역사》에서 프로이트가 프랑스에서 사르코를 처음 만난 1885년부터 프랑스식의

프로이트주의인 라캉주의가 국제주의적 정통과 다양한 라캉주의로 분열된 1985년까지 백년의 역사를 다뤘다. 이번에 번역된 루디네스코의 저서 《자끄 라캉》은 보기 드물게 라캉의 내밀한 가족관계와 개인적인 생활을 다루고 있고, 라캉의 주변인물들인 알렉산드르 코제브, 하이데거, 알튀세르 등 동시대의 철학자들, 다양한 정신분석학자들, 제자들과의 교류를 제시하고, 라캉이 혁신적인 정신분석학적 개념과 임상치료 과정을 창출해가는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라캉은 프로이트 이론을 1923년 처음 접하지만 프로이트의 히스테리 문제를 이해하게 된 것은 1932년이라고 루디네스코는 지적하고 있다. 라캉은 조르주 두마, 앙리 클로드, 가에탕 가티앙 드 클레랑보의 영향으로 편집증적 정신병의 구조에 대해 연구하는데, 특히 에베라는 가명의 마그리트 팡탱느의 사례를 연구해 1932년 《개인의 성격과 관련된 편집증적 정신병 증세에 관하여》라는 박사논문을 썼다. 루디네스코의 저서는 이 마그리트 이야기의 전모를 일목요연하게 밝히고 있다. 이 당시 정신분석학자로서 과도기 상태였던 라캉은 편집증에 초점을 맞추면서 임상학적 정신의학, 프로이트 이론, 초현실주의, 그리고 스피노자, 야스퍼스, 니체, 후설, 베르그송, 헤겔, 하이데거 등의 철학을 탐구하면서 정신분석학의 이해에 전복적인 요소를 첨가하고 있었다. 라캉은 1933년 레아와 크리스티느 파앵 자매 사건을 자기 처벌적 편집증으로 이해하고 편집증적 정신착란의 사례로 분석했다. 루디네스코는 이 사례 연구를 통해 라캉이 퇴벤슈타인에게서 정신분석을 받고 코제브의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인성이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라는 스피노자적 일원론에서 벗어나 헤겔적 변증법적 일원론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관찰하고 있다. 1936년부터 라캉은 앙리 왈롱, 알렉상드르 코제브, 알렉상드르 코이레 등의 논의를 토대로 데카르트의 코기토 이론을 해체하는 주체이론에 해당하는 ‘거울 단계’의 개념을 구성해간다.

루디네스코는 이어서 라캉이 소쉬르의 《일반언어학 강의》를 통해 구조언어학의 원칙을 발견하고, 나아가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의 《친족관계의 기본구조》를 접하면서, 독자적인 프로이트 독법을 창출해낸 과정을 추적한다. 여기서 라캉

은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시니피앙의 기능을 발견하고 이와 연결해서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로 알려진 새로운 위상학을 창조하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개념을 구조적으로 수정했다. 또한 프로이트의 전통적인 상담시간을 수정해 가변적 상담시간 개념을 도입했다. 하이데거의 “진리의 드러내기”와 “말이 작용하는 대로 내버려두기”를 차용해, 라캉은 욕망의 드러냄이라는 문제를 인식하고, 소쉬르와 레비-스트로스에 대한 해석에서 인식된 시니피앙 이론을 로만 야콥슨의 은유와 환유 이론으로 논리적으로 구조화해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돼 있다”고 주장하게 됐다.

이런 라캉의 이론적인 발전단계가 심도있게 제시되고 있는 루디네스코의 저술은 다른 한편으로는 라캉의 가족과 라캉과 자신의 연인들에 관한 세밀한 전기로서의 역할도 충실하게 하고 있다. 독자들은 라캉의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여러 정보를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권의 저서를 읽고 난 후,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주로 영어권 문화에서 이론의 중심이 돼온 라캉의 정신분석학 이론의 난해성에 지친 독자들은, 오히려 라캉의 가족관계와 애정문제로 인해 드러나는 인간 라캉의 모습에 더욱 실망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 두 권의 특징은 가족관계로 인한 정신적 불안과 신경증세를 지닌 사례로서 프로이트와 라캉 둘 다 자신이 그 관찰대상이 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는 점에 있다. 분석대상인 환자들의 담론으로 대표되는 일상생활의 담론과 사회적 담론에서, 자신의 내부에서 타자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프로이트와 라캉은 정신분석학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은 이 책들을 통해 개인, 사회, 정치, 문화 등의 일상생활 속에서 정신분석학의 편제를 인식하고 느낄 때, 좀더 풍성하고 지적인 자기반영적인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